

담임 때리고, 원정 학폭까지... 인권교육·비상대책 목소리

교사 상해 등 교권침해 잇따라
익산 초5 남학생 학폭 '발각'
전문가들 "예방 불가능한 범주
상황 맞춤형 지원체계 등 필요"

학생들의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최근에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5학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폭력을 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총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



교권 침해·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도이미지

분을 받고, 전입한 학교에서 같은 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던 중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은 욕설, 수업 방해나 협박을 당했다. 특히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신고하고,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인 사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

다"며 "학생 인권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존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은 학교폭력에서도 증가세를 보여 위험을 예고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학교폭력·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수가 2020년 대비 각각 26%, 4%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자 주춤했던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에도 여러 차례의 학교 폭력이 발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소재의 중학생 2명이 부천시내 길가에서 고등학생 2명을 폭행했다. 무려 40km 가까이 차이 나는 거리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교내 학교폭력을 발단으로 시작된 '원정 폭행'이었다.

지난 5월 천호동 공사장 인근에서 특수폭행을 저질렀던 중·고등학생 4명은 22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집단으로 또래의 타고 학생을 폭행했으며, 목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학생들의 폭력 행위는 예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추후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김이경 교수는 "돈 낭비가 아닌 사람 살리는 일"이라며 "획일화된 지원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표본조사 결과' 중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장난으로

(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다음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 '특별한 이유 없이(19.2%)' 순이다.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에서 친구들끼리 똑같이 입고 다니는 등 비슷한 행동을 즐기기에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회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급에 다시 들어섰을 때,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이어 조 회장은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갔을 때, 따뜻하게 어울려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 종합적인 인권 교육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해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택시 'GPS 애플미터기'로 본격 전환

위치·거리 정확도 높여 요금 산출
이달부터 설치... 연내 전체 도입

서울시는 미터기의 위치·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시미터기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방식이 유일했지만, 올 2월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돼 중형택시에 앱 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금번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도입을 통해 기존 기계식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요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사용 모습. /서울시

이날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앱 미터기 모니터링 결과, 요금 오차율은 0.87%, 거리 오차율은 1.05%로 기계식 미터기(요금 오차율 2% 미만, 거리 오차율 4% 미만)와 비교해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 설치를 시작해 연내 전체 중형택시 6만9000대를 대상으로 앱 미터기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 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 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전면적으로 서포트할 뿐 아니라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당사자가 회복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권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목표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직'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화행(소통이 확산돼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화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실제 사례를 담아 체감도를 높인다. OX 퀴즈, 성인지·폭력에 방 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해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김포공원묘지 이전사업 추진 본격화

라함, 만기도래 대출금 구상채권 상환

김포공원묘지이전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김포공원묘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라함엔터프라이즈(이하 라함)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구상채권으로 상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함은 지난 달 3일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재)김포공원묘지의 채권을 보유한 회사의 양수채권으로 재단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 전액을 상계해 상환했다.

그동안 김포시 풍무동도심지에 위치한 김포공원묘지 이전 요구는 김포시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여 년을 이어왔다. 특히 선거 때마다 모든 정당 후보자들은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공약하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김포시와 (재)김포공원,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2021년 8월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정업무는 김포시, 묘지이전업무는 (재)김포공원, 사업추진은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앞서 풍무7·8지구 추진위원회 시행대행사인 라함은 풍무동 공원묘지 토지

소유주인 (재)김포공원과 2019년 8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자체자금으로 토지대금, 인허가 비용 및 각종 용역비 등 수백억원을 투입했다.

그동안 라함은 김포공원묘지 대체부지로 사용하기로 한 상마리 김포공원묘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군하리 김포시립 장사시설로 이전도 김포시의 불가조치로 사업이 지연되자, 비용을 몇 배 더 투입해서 인근 시설 묘지 확보를 진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풍무7·8지구의 지정고시를 득했다.

라함은 "그동안 사업진행상 필요한 지장물조사, 측량 등 업무 등이 방해받았었고, 앞으로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와 함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세종대 음악과, '인공지능 작곡' 특강 성료

세종대학교 음악과는 지난 6월 9일 세종대 AI센터 B107호에서 음악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대중음악 작곡"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EDM 작곡가인 LecM(이은철)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특강은 4차산업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특강에 소개된 소프트웨어인 'musia'는 국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 제작한 작곡AI툴로 전 세계에서 3개 회사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김현태 세종대 실용음악과 교수는 "예전의 작곡이 음표를 악보에 하나씩

적어서 그리는 방식으로 멜로디가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작곡이라는 행위 안에서 사운드나 편곡 등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작곡가가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다"며 "송캠프라는 방식의 협업을 통한 작곡이 중요시 돼가고 있는데 이런 AI 작곡 시스템을 활용하면 컴퓨터와의 협업을 통해 좀더 빠르게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대 음악과는 2022년 2학기부터 '컴퓨터음악' 등 A.I를 활용한 음악제작법을 커리큘럼에 반영해 교육할 예정이다. /신해은 기자